

입 사 지 원 서

희망 직무	SW
희망 근무지	무관



이 름	(한글)	김재환	(한자)	金材煥
생년월일	1994. 08. 26			
자택전화	055-372-1797		휴대전화	010-2854-1797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하방로 26-6번지			
E-mail	rlawoghks4@naver.com			

	기 간	출신학교명	전 공	졸업 여부	학 점
학력사항	2013.03 ~ 2020.08	안동대학교	전자공학부	졸업	3.7/4.5
	2010.03 ~ 2013.02	보광고등학교	인문계(이과)	졸업	-

	기 간	회 사 명	직 위	업 무 내 용
경력사항	2017.02 ~ 2017.12	안동대학교 입학관리팀	단기계약직	학과 소개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구동

	종 류	취득년월일	발 급 기 관
자격사항	2종보통 운전면허	2014.02.10	울산지방경찰청장

	수 상 명	취득년월일	발 급 기 관
수상경력	ICT융합 공모전(장려상)	2018.11.27	충북ICT산업협회장
	캡스톤 디자인(최우수상)	2018.12.06	안동대학교
	캡스톤 디자인(장려상)	2018.06.08	안동대학교
	캡스톤 디자인(대상)	2017.12.07	안동대학교

	기 간	기관명	내 용
교내외활동	2015.03 ~ 2020.02	임베디드 연구실(ATO)	AVR128,라즈베리,아두이노,FPGA등 MCU를 기반으로 학습 및 로봇 제작
	2018.11	임베디드 경진대회	로봇 경진대회 (ArmStrong-뱀로봇, FPGA,라즈베리,모터,카메라)
	2017.03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로봇 경진대회 (Picot-배관로봇,모터,워터펌프,FPGA,라즈베리)
	2017.11	공학페스티벌	로봇 경진대회 (Picot-배관로봇,모터,워터펌프,FPGA,라즈베리)
	2017.11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KIRC)	로봇 경진대회 (Picot-배관로봇,모터,워터펌프,FPGA,라즈베리)

병역	군필여부	필	기타 사항	취미	테니스
	복무기간	2014.9.23. ~ 2016.06.22		특기	밤샘작업

위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지원자 : 김재환 (인)

자 기 소 개 서

지원동기	<p>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임베디드 연구실(ATO)에 들어와 AVR,라즈베리,FPGA 등 MCU를 구동해 세미나를 진행해왔습니다.</p> <p>완제품이 아닌 센서와 부품을 구입해 직접회로를 설계하고 납땜하여 하드웨어를 설계하였고 AvrStudio를 통해 프로그래밍하였습니다. 저는 온도센서,조도센서,모터,초음파센서,LED,FND,No de.js,소켓통신등을 이용하여 개인프로젝트를 완성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저는 각 부품에 대한 데이터시트를 볼 수 있었으며 시스템 설계 능력을 갖추었습니다.</p> <p>각종 대회에서는 발표담당과 하드웨어설계를주도하여 하드웨어를 구상하고 직접 설계하여 3D프린터로 제작하였습니다.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며 하드웨어를 설계통해 하드웨어에 맞는 SW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p>
------	---

성장과정	<p>[도전정신과 분석력]</p> <p>누구나 처음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 또한 겁이 많으며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어떠한 일에 안좋은 기억이있다면 더욱 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다 결국하게 되는 스타일입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이 무서워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물먹고 응급실에 실려가 겨우 살아났던 기억이 있어서 말입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제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합니다.</p> <p>나는 무서워서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p> <p>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까?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물속에서 걷기, 뛰기, 숨참기 등을 통해 물과 친해지며 두려움을 떨쳐냈으며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이 경험을 통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도 하려고하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이 무서운데 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물을 무서워하지 말자, 수영은 그 다음이다라며 분석하여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것을 더 잘하는 방법 또한 있다고 생각하여 무서운 것이라도 도전하며 분석하여 방법을 찾습니다.</p>
------	--

<p>성격</p>	<p>저는 리더를 맡는 일이 많았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결정은 제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며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팀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지 또 된다고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묻습니다.</p> <p>팀원의 의견을 묻고 종합하다보면 안된다는 것을 해야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p> <p>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팀원이 우리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면 채우면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관련 논문을 찾고 박사님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직접 '원자력연구원'에 찾아가 로봇을 보고 질문하며 부족한 기술력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로 수상도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국가사업에 신청하여 제대로 만들어 볼 생각없느냐고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된다고 할 때 방법을 찾고 도전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p>
------------------	---

<p>학교생활 및 경력개발</p>	<p>저는 테니스동아리 회장, 임베디드 연구실 회장, 또래상담자를하여 사람을 리드하고 상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알게된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과 상대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p> <p>테니스에서는 테니스만 잘가르쳐주면 된다. 연구실에서는 성과만 좋으면 된다. 상담중에서는 상담자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테니스에서는 친목(재미)를, 연구실에서는 의견반영을, 상담에서는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시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p> <p>이렇게 원하는 것이 다르다보니 관계가 지속되긴 힘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제가 원하는 것 얻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사람의 평판을 얻고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p> <p>임베디드 연구실에 들어와 세미나를 통해 공부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 프로젝트와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경북 SW창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학생에게 아두이노를 가르쳤으며 3D프린터 교육을 받아 Creo를 통해 3D도면을 제작하고 3D프린터로 하드웨어를 제작했습니다. 공모전으로는 Picot-배관로봇과 ArmStrong-뱀로봇이라는 주제로 참여했으며 수상도 받았습니다.</p>
-----------------------------------	---

<p>입사 후 포부</p>	<p>'기본만해도 반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반은 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회장을 맡고 또래상담경험을 통해 사람을 대하는 법과 조직의 흐름을 파악하여 잘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분석하여 길을 찾고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소한 반 이상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p>
---------------------------	--